



2021 광주일보 'Green 자전거 축제'가 지난 20일 광주 서구 영산강자전거안내센터 일원에서 열렸다. 축제에 참가한 라이더들이 영산강변으로 이어진 주로를 따라 달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쟁 아닌 함께...가을 절경 만끽하며 '힐링'의 페달

동호인·가족·친구 등 500여명 참가
45km '사랑코스' 25km '행복코스' 질주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자전거 축제가 펼쳐졌다. '2021 자전거 이용 활성화 Green 자전거 축제'가 20일 오전 9시30분 광주 서구 벽진동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 일원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사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 주최하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광주본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자전거 동호인, 가족, 친구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대회 코스를 달리며 승촌보, 풍영정, 만귀정 등 영산강변의 절경을 즐겼다.

Green 자전거 축제는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을 지키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시민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라이더들이 손꼽는 자전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위를 가리는 여느 대회와 달리 '화합과 안전'을 슬로건으로 건 자전거 페어이드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 때문에 취미로 자전거를 즐기는 라이더는 물론 초심자, 여성, 세대별 아우른 가족들이 다수 참가해 자전거를 즐겼다.

비경쟁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광주 서구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교)에서 출발해 서창교-흥어1번지-영산대교-승촌보를 지나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사랑코스'(45km)와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에서 출발, 서창교-승촌보-승촌보안내센터(반환)-서창교를 돌아오는 '행복코스'(25km)로 나뉘어 열렸다.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은 선두에서 참가자들을 이끌고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축제에 앞서 다채로운 행사도 열렸다. 초대가 수 빛나라, 양산박, KJN댄스팀이 무대에 올라

공연했다. 행사 주최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 대회를 치렀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문세훈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광주본부장은 "Green 자전거축제는 경쟁하는 대회가 아니라 자전거 페어이드인 만큼 참가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라이딩을 즐겼으면 한다"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자"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Green 자전거 축제' 참가자들이 안전운행과 완주를 다짐하며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모바일로 만난 자전거 친구들 "색다른 기쁨 느낀 축제"

초등생 김민겸·이지후·김상우 군
사이클 선수·다이어트 등 목표 다양

요즘 세대는 다르다. 학교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모바일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만나 함께 취미를 나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자전거 친구가 된 김민겸(계수초 5년), 이지후(효광초 6년), 김상우(삼육초 6년) 군이 Green 자전거 축제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만남은 온라인에서 시작됐다. 이지후 군이 "자전거를 함께 타자"며 올린 글을 보고 시간을 맞춰 함께 자전거를 타게 됐다. 취미로 자전거를 타던 이들은 대회 정보도 공유하면서 Green 자전거 축제에도 참가하게 됐다. 이지후 군은 "앞바퀴 들고 타는 연습을 하고 싶고, 살도 빠고 복근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자전거를 타게 됐다"며 "상무 시민 공원 등에서 함께 모여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할아버지께서 대회를 추천해줘서 친구들과 함께 오게 됐다.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는데, 색다른 기분으로 자전거를 타서 좋다"고 대회 참가 소감을 밝혔다. 김상우 군도 엄마의 지지를 받아며 자전거를 즐기고 있다. 김군은 "어렸을 때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탔었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전거 친구'가 된 김민겸(왼쪽부터), 이지후, 김상우 군.

데 학원 스케줄이 많아서 많이 못 탔었다"며 "당근 마켓에서 같이 자전거 탈 사람을 구하는 글을 보고 만나게 됐다. 주말에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대회에 함께 나오니 더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서 게임을 하면 잔소리를 듣는데 자전거 타고 오겠다고 하면 엄마도 좋아하신다"고 웃었다. '스피드'를 자전거의 매력으로 꼽는 김민겸 군은 취미를 넘어 운동선수의 꿈을 꾸고 있다.

김군은 "속도를 내면서 자전거를 타는 게 즐겁다. 스피드가 매력이다.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다. 평일에는 3-4시간 자전거를 탄다. 주말에는 하루 내내 자전거 연습을 하고 있다"고 자전거 사랑을 말했다. 또 "자전거를 타는 게 좋아서 (사이클팀이 있는) 금성중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 엄마도 운동선수 꿈을 응원해주신다. 안 다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타면서 꿈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가족 응원 받으며 동생과 완주해서 뿌듯"

14년 전 한국 온 시오하라씨 가족
"내년에는 딸들과 같이 달리고 싶어"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Green 자전거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경쟁 없이 편하게 달리는 코스로 인기가 많다. 북구 양산동에 거주하는 시오하라 에이코(43)씨는 19일 자녀 4명과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 시오하라씨는 14년 전 한국에서 터를 잡은 일본인이다. 이날은 25km 행복코스에 도전하고 싶다는 딸 조은희(12)양과 조은주(9)양을 위해서 온 가족이 출동했다. 은희양은 "교회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전거 축제에 대해 알려줘서 참가했다. 지난해 9월에도 자전거를 타며 영산강을 알리는 환경 캠페인에 참가해 완주해서 오늘도 자신있었다"고 말했다. 시오하라씨는 출발 전 "주행 거리가 멀어서 완주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은희가 자전거를 잘 타니까, 꼭 완주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은희·은주 자매는 엄마의 격정을 맘껏 털어내고 완주에 성공했다. 은희양은 처음으로 자전거 코스를 달려 본 은주양과 꼭 붙어 주행했다. 힘이 들어도 곳곳이 페달을 밟은 이들 자매는 나란히 반환점을 돌아 결승선까지 무사히 통과했다. 은희양은 "엄청 힘들었고, 끝난 뒤에도 다리가 후들거린다. 반환점을 돌고 나서 돌아올 때 다리에 힘이 안들어갔다"며 "같이 온 교회 가족들이 응원해줘서 끝까지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주해서 뿌듯하고 기쁘다. 동생과 같이 달리며 결승선까지 함께 들어와 더 즐겁다"고 말했다. 시오하라씨는 "은희·은주가 내년에 꼭 다시 참가해 완주하고 싶다고 한다. 내년에는 나도 함께 자전거에 올라타 같이 코스를 달려보고 싶다"고 웃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왼쪽부터 조은희·은주양, 시오하라 에이코씨.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